

Clubber Story



꿈꾸는 어와나

Hello everyone! I'm Park Mi-kyoung from Suwon Jeil church.

My kids, Young-Hae and Young-Seo, joined Awana club because of Wednesday Service. Because I used to attend services with my kids, but it concerned me that they had a trouble concentrating their attentions on service. One of my friends suggested letting my kids participate in Awana club. Kids enjoyed Awana program saying "Mom, Awana is really fun! I'll attend every week!" It was far beyond what I expected. I registered them to club right away and I could focus on service much better.

Then one day, there was an announcement of changing schedule of Awana club hour from every Wednesday evening to Sunday. It was difficult to make a decision, but we decided not to attend Awana club for a while, since we would spend the weekend at my parent's place in the country. It was time for us to realize that Awana had had a big impact on me and even my family. We eventually determined to go back to Awana!

My kids look forward to Sunday Awana club hour and their love for Awana and Jesus grows daily more and more. Awana fascinated me as well as my kids so I have recommended Awana club to many parents I know.

Once kids join Awana club, they love it! That's why I think that all parents should know Awana and send their kids to the club. Isn't it great if they can grow their faiths and learn both concessions and encouragement through the Awana club activities?

I hope all kids including nonbelievers join Awana club to be raised the way they should, and to have personal and spiritual development. Also I pray for club leaders that they always can serve pleasurably and their fatigue melt away when they meet kids in Awana club.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제일교회 박미경 집사입니다. 영해, 영서가 어와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와나가 주일 날 모임을 갖지만 2년 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저녁예배에 참여하던 저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사님의 권유로 아이들을 어와나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어와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 "엄마, 나 어와나에 다닐 거야, 계속 보내 줘 "진~짜 재밌어!" 우리 아이들은 땀을 흘리면서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와나는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와나에 등록했고 저는 수요일 예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보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와나를 주일로 옮긴다고요.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택과 친정이 시골이었기에 주일예배를 시골에서 드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1년 동안 어와나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와나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았기에 어와나에 계속 보내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아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와나를 기다리고 교회 있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피곤함도 없이 주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와나를 홍보하는 어와나 매니아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한 번 어와나에 들어오면 어와나를 기다리게 되고 어와나를 즐거운 자리로 생각하니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어와나에 꼭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와나에서 신앙도 자라고 게임을 통해 양보와 격려도 함께 배워나가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직 어와나를 모르는 아이들도 어와나를 참여하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또한 피곤치 않고 즐겁고 기쁜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 주시길 바랍니다.